



이달의 독립운동가

김원용·전경무·심영신·민함나 선생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독립의 원동력 되다



김원용



전경무



심영신



민함나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미주지역의 독립운동 연합단체인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이끌었던 김원용(1896~1976)·전경무(1898~1947)·심영신(1882~1975)·민함나(1888~1952) 선생이 선정됐다.

1930년대 후반부터 미국 본토와 하와이에 독립운동을 위해 미주지역 한인사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미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의 재미한족 9개 단

체 15명의 대표들이 1941년 호놀룰루에 모여 해외한족대회를 개최해 ‘해외한족대회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독립운동 단체를 통일하고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라는 연합기관이 탄생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대미외교 활성화와 독립운동 변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모집 운동을 펼치며 침체되었던 해외독립운동에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었다.

정부는 김원용·전경무 선생에게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심영신 선생에게 199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민함나 선생에게 201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추서했다.



이달의 6·25 전쟁 영웅

김용호 해병대 중위 (1929.9.16.~1952.11.1.)

결사의 각오로 장단지구를 사수한 해병대 중위



김용호 중위는 1952년 3월 해병대 소위로 임관해 장단지구를 방어하고 있던 해병대 1연대 11중대 3소대장으로 참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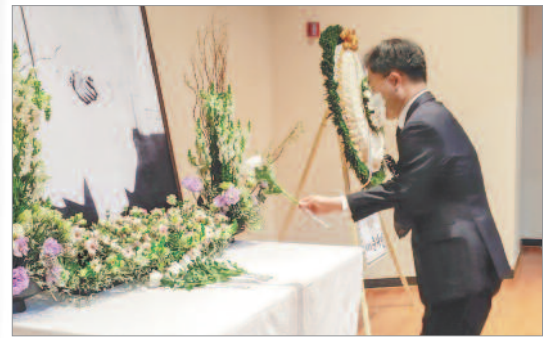
당시 장단지구는 서울에서 불과 40여km 거리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1952년 3월부터 국군 해병대와 중공군 간 치열한 격전이 이어지는 곳이었다. 그해 10월 31일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 감행 때 김 중위는 장단지구 사천강 지역 전

초진지에서 증강된 1개 소대의 병력으로 대대 규모의 중공군을 맞아 백병전까지 벌이며 결사적으로 진지를 사수했다.

병력과 화력의 열세로 적이 끝내 진지에 난입하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아군에게 진내사격을 요청하는 등 사투를 벌인 끝에 중공군을 격멸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하들을 잃은 죄책감에 소대원들이 잠든 이 고지에서 자결을 택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53년 중위 특진과 함께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안중근 의사 111주기 추모식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을 단죄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안중근 의사 순국 제111주기 추모식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사진>

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김황식)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추모식에는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과 안중근 의사 유족, 숭모회 회원 일부만 참석했으며, 안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추모식을 생중계했다.

추모식에서는 올해 제정한 ‘안중근 동양평화상’의 제1회 수상자로 일본 류코쿠대 사회과학연구소 부속 ‘안중근 동양평화연구센터’를 선정하고 이날 시상했다.

안창호 선생 83주기 추모식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도자이자 민족 계몽에 앞장섰던 도산 안창호 선생 서거 제83주기 추모식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 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안창호 선생 유족과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추모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한편 이날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은 서울 강남 도산공원 내 안창호 선생 묘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 했다.

6·25참전자 부상 입증 제보자를 찾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찾습니다. 아래의 참전자들과 활동을 함께 했거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 고 김태문 님(1924.10.5.)



○ 군 복무 내용

- 1950.8.16. 육군 입대 (군번 K1131057), 1955.2.15. 만기전역(중사)
- 무공수훈자, 육군 3사단 복무 중 1953.7.11.~1953.7.18. 5 육군병원에서 공상 치료받고 2보충대로 퇴원

○ 부상 경위와 신청 부상 부위

- 오른쪽 허벅지 관통상으로 10cm 정도의 흉터, 다리를 절었음(배우자 진술)

■ 필요한 제보 내용

- 부상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지휘관이나 동료, 부하 등 진술
- 부상 부위를 직접 치료한 군의관 등 의료업무 종사자 진술
- 같은 병상 입원환자 등으로서 치료 장면 등을 직접 목격한 분 진술

■ 고 김승운 님(1930.11.23.)



○ 군 복무 내용

- 1948.6.1. 육군 입대 (군번 1107310), 1952.2.16. 의병전역(하사)
- 육군 11사단 등에서 복무, 1948.7.27. 제1육군병원, 1950.10.17.~1951.5.1. 제23육군병원에 입원, 제1보충대로 복귀 후 의병전역

○ 부상 경위와 신청 부상 부위

- 발목 관통상을 입고 의병전역(배우자 진술)

- 고인으로부터 부상사실을 들었거나, 관련 사실이나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 등 진술

■ 연락처 : 보훈심사위원회 044)202-5831~3, 5955

■ 고 이대형 님(1931.4.5.)



○ 군 복무 내용

- 1952.9.10. 육군 입대 (군번 9350308), 1954.2.18. 의병전역(상병)
- 춘천수용대 복무 중 1953.5.12.~1953.9.16. 제36육군병원에서 공상 치료받은 후 의병전역

○ 부상 경위와 신청 부상 부위

- 우측 대퇴부 관통상, 팔 부위 총상, 안면 파편상으로 인한 실명(배우자 진술)